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3

평등과 중도를 실천해야

**[원문]**  
수선운산천만사(維宣雲山千萬事)  
해천명월본무언(海天明月本無言)  
황앵상수일지화(黃鶯上樹一枝花)  
백로하천전점설(白鷺下田千點雪)  
-쌍계사 삼성각

**[번역]**  
산의 구름처럼 천만가지 법문들을 비록 설하였으나  
저 바다와 하늘, 해와 달은 본래부터 말이 없네.  
나무에 앉은 노란 피꼬리 한 송이 꽃이요  
밭에 내려앉은 백로는 천 송이 눈꽃 같네.

**[선해(禪解)]**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단군 이래 배달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말이 무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 있다.

종교적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불교가 1,700여년 전 고구려 수수림왕 때 들어온 이래,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 한국에 들어온 종교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의 우월성을 논하거나 서로의 종교를 폄하하는 발언은 잘못된 시각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모든 종교의 이념은 사랑과 평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서로가 가진 종교에 대해 각자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에 내가 살다가 죽는 날도 오늘이요, 내가 다시 태어난 날도 바로 오늘이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을 최선으로 다해 살아야 한다.

일찍이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하셨으며 악명 높은 인도의 사성계급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또한 모든 이들을 품속으로 안으시며 평등과 중도(中道)를 실천하고자 했다.

중도란 과하지도 않고 또한 모자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중도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념에 대해 한 발 물러나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믿는 종교가 좋다. 네가 믿는 종교가 좋다'는 그릇된 믿음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서로의 종교를 존경하고 이해 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종교적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다문화,

다민족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처님이 계시던 인도 당시, 어느 외도의 모임에 가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외도들은 갖은 욕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처님은 그들의 욕설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문을 하시고 난 뒤 외도들이 차려 둔 음식을 들지 않았다. 이때 외도들은 부처님께 "왜 차려 놓은 음식을 들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그 때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대로 두면 누구의 것이 되는가?"하고 외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외도들은 "당연히 음식은 차린 사람의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럼, 나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의 그 욕설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 순간 외도들은 큰 뉘우침을 받아 욕설을 거두

경내에는 국보 제47호인 진감선사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를 비롯하여 보물 380호의 쌍계사 부도(浮屠), 보물 제500호의 대웅전 등의 지정 문화재가 있고, 이 밖에 5층 석탑·석등·일주문(一柱門)·팔상전(八相殿)·명부전(冥府殿)·천왕문(天王門) 등이 있으며 중국의 승려 혜능(慧能)의 두상(頭象)을 봉안했다는 금당(金堂)에 있는 육조정상탑(六祖頂相塔)과 나한전(羅漢殿)·금강전·칠불아자방(七佛亞字房)·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지리산 쌍계사 삼성각에 세워진 주련은 부처님의 무한법문의 위대함을 설하고 있다. 이 법문들은 부처님의 무한공덕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산의 구름처럼 천만가지 법문들을 비록 설하였으나 바다와 하늘, 해와 달은 본래부터 말이 없네.'

산과 구름은 무한하다. 이처럼 부처님은 이루어질 수 없이 많은 법문들을 설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다와 하늘, 해와 달이 말없이 묵묵하게 우리

의 몸속에 젖어 들어있다. 하지만 그 무한 법문의 공덕을 우리는 한없이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무에 앉은 노란 피꼬리 한 송이 꽃이요/ 밭에 내려앉은 백로는 천 송이 눈꽃 같네.'

이쯤에서 보면 부처님의 법문들은 마치 나무 위에 앉은 노란 피꼬리가 우는 소리와 같고 한 송이 벚꽃 같다. 나아가 밭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백로의 하얀 눈송이 같은 모습 또한 부처님의 법문이나 다를 아니다.

참으로 이보다도 더한 진리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모든 이념에 대해 한 발 물러나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항상 가져야

고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도 남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정신은 바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삶이다.

주련 여행을 하기 전에 산승(山僧)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찰 속에 담긴 주련의 내용들이 모두 부처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는 종교의 편향도 종교의 이념적 가치관도 없으며 오직 종교적 삶만이 담겨져 있다.

쌍계사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벚꽃 심리'이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하늘 물결 머금은 하얀 잎사귀들이 날리기 시작한다. 하중 입구부터 화계장터까지 이어지는 심리 길은 그야말로 장관으로 4월 초순이 그 절정이다.

쌍계사는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이다. 신라 문성왕 때 진감선사(眞鑑禪師) 최혜소(崔慧昭)가 세웠다. 처음에 옥천사(玉泉寺)라고 부르다가 현강왕(憲康王) 때 한 고을에 같은 이름의 절이 두 개가 있어 혼동을 일으켰으므로, 문전에 흐르는 쌍계에 연유하여 쌍계라는 호를 하사(下賜)하고 학사(學士) 최치원(崔致遠)으로 하여금 '쌍계석문(雙溪石門)'의 4자를 쓰게 하여 바위에 각자(刻字)하였다. 그 후 두 차례나 화재로 절이 소실되었으나 조선인 조 때 벽암(碧巖)을 비롯한 여러 승려들에 의하여 복구·중수되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3

눈을 떠야 꿈에서 깬다

**[원문]**  
自誑無念 縱有珍寶如山 眷屬如恒河沙 開眼即見 合眼還見麼 故知有爲之法 如夢幻等 若不急尋師 空過一坐 佛性自有 若不因師 終不明了 不因師悟者 萬中希有.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이 없다. 진기한 보물이 산 같고 권속이 항하의 모래처럼 많다 해도 눈을 떠야 보이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위법(有爲法)은 꿈이나 허깨비 같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리라. 그러므로 불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끝내 밝게 깨달을 수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드물다.

**[해설]**  
수행을 통해서나 이론을 통해서 깨치지 못했는데 깨쳤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깨치지 못했는데 깨쳤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을 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실상 그 자리를 모르고 법을 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모두가 부처 아니게 없습니다. 우주의 실상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다 부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화신불(化身佛)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보물이 보이겠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지 않' 하는 법문에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눈을 뜨면 우주가 모두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되어야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뜨고 본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모두 관세음보살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중생놀음은 유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위법(無爲法)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위법은 작용도 아니요 형상도 아닌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실상자리, 마음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자리는 모양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모양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마음에서 보면 모양이 없는 거예요. 육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착각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자리에 한 생각을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 속에서 본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가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숨이 끊어지면 꿈을 꾸다 깬 것과 똑 같은 경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되돌아보면 꿈을 꾸고 깬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자리에 두고 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꿈 속에서 깬 것이고, 한 생각을 놓치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 놀음이다 이런 얘깁니다. 꿈속에서 본 것이 사실이 아니듯 지금 현실을 마음자리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은 모두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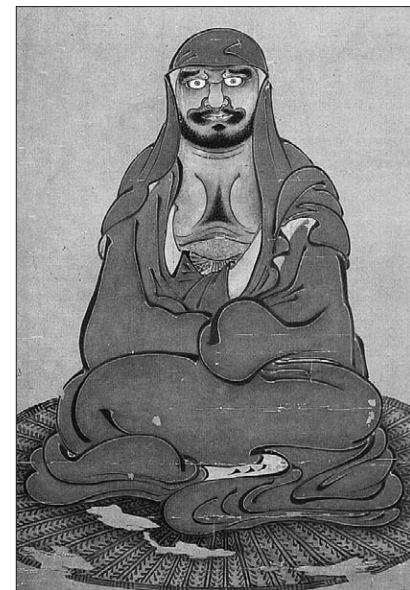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한 평생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부처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간혹선은 의심하라고 말하지만 조사선에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고 우리가 실패 정진하면 실패 정진 한만큼 반드시 우리들 마음도 맑아지는 겁니다. 업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성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인데도 스승이 없으면 깨닫기 어렵

습니다. 본래 부처이지만 가르치는 분이 없으면 깨닫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처님도 금생에 온갖 고행을 통해 성불하셨습니다.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서 수많은 수행을 통해 견성을 했던 분이십니다. 견성을 했던 분이지만 최종적으로 사바세계에 오셔서 완벽한 성불을 하신 겁니다. 견성은 삼십 겁 전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자유 자재하여 결립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육신통(六神通)을 써서 결립 없이 마음을 썼던 경우를 우리가 '성불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도(正道)와 외도(外道)의 수행으로 본분사(本分事)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듯이 부처님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달마 스님 말씀은 조금도 헛말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는 바로 본래 여러분들 마음자리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체(體)에서 보면 우주가 곧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찾는 그 놀이 곧 우주의 하나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실패 이십 분 한 시간씩 행한다면 우리가 분명 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 청주 혜은사 주지



日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달마도

불기2553년 4월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종교법인 대한불교 三寶조계종

大僧(皇) 멸공 大宗師(초대종정)

僧正 태화 大宗師(2대종정) 宗正직대 비담 大宗師(3대종정)

元老院長	금산 大禪師	副宗正	총무원장 대행	고시원장	현각 宗師	호법원장	법천 禪師	
법조고문	김인수 변호사, 백경석 변호사 (전직 판, 검사)	법조위원	주신식 법무사, 박명준 법무사 (전직 법원주사)	호법위원	법영, 영운, 법현, 지훈	고시위원	화륜, 마우, 광진, 법웅	
총무원장	법정 사무총장	법경		총무위원	청조, 진묵, 보현, 보창, 청파, 평산, 석연, 무해, 지명, 법고, 건록, 이산, 도담, 법운, 성운, 청봉, 혜찬, 도묵, 도선, 도우, 도문, 성수, 성효, 성무			
총회의장	청법 부의장	지우	총회의원 일동					
감찰원장	법도 부원장	성안	교육원장	홍인 부원장	진묵	문화원장	정수 부원장	지혜
포교원장	우암 부원장	지공	무술원장	청도 부원장	보원	염불원장	원명 부원장	청산
중선원장	석장 부원장	화륜	복지원장	원각 부원장	경보	국제원장	남산 부원장	보성
건설원장	성담 부원장	보각						

**교구현황**

서울교구원장	석원현	경기교구원장	석마조	광주교구원장	석관조	강원교구원장	석보산	부산교구원장	석범호
대구교구원장	석자원	경북교구원장	석취운	경남교구원장	석서암	울산교구원장	석도연	충남교구원장	석태륜
충북교구원장	석지원	전북교구원장	석일도	인천교구원장	석법영	중부교구원장	석정복	일본교구원장	석수원

전 종도 일동

- 중단총림 : 천년고찰(천명대중 수행처) 유학산 위봉사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삼보사 / 전화 055)338-0089
- 승가대학 : 제2기 학인모집 (전문교수진-핵심교육, 단기교육, 실전교육) ■ 교학부 인가 전문교육기관

제2기 승가대학 학인모집

- 1) 기초강원 특수반 (초심, 발심, 자경, 치문, 의식학)  
(불교학, 포교학, 경영학, 종교학, 복지학, 심리학)  
- 강의요일 : 매주 목요일, 금요일  
- 개강일자 : 6월 中 (대학 신입생 모집)  
- 강의시간 : 120 - 240분  
- 접수기간 : 2009년 5월 1일 ~ 31일  
(전화 055-338-0089, 338-0050, 011-801-8197)  
- 수료기준 : 80% 이상 출석 (특전 : 자격증 수여, 어산 법패과 진학)

- 2) 강의 일시 및 내용  
대한불교 범종단 교육원 승려교육 기초강원 (한국불교승가대학)  
· 제1강 : 기본승학 - 초심, 발심, 자경, 치문  
· 제2강 : 기본의식 -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 제3강 : 기본의식 - 축원편, 장의편, 영반편  
· 평가시험 - 봉사활동 - 특강  
· 제4강 : 기본의식 - 천도편, 수계편, 범회편  
· 제5강 : 본학 - 불교학, 포교학, 복지학  
· 제6강 : 본학 - 종교학, 심리학, 경영학  
· 평가시험-봉사활동-특강  
· 종정리  
· 졸업시험  
· 수료식

교학부 인가 전문교육기관 **한국불교승가대학**